

알 수 없음(Not-knowing)

| 운마니 리자 하이드 | 이재익 옮김 |

제한 없고 경계 없는 절대적 세계 그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는 것(knowing)에 높은 권위를 부여한다. 알고 이해하면 인생에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알고 이해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보호된 느낌이 든다. 반면 모르는 대상(the unknown)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모름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어서 인간의 정신으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에, 인간 정신은 그 인식의 틈을 끊임없이 개념과 믿음으로 메운다. 텅 빈과 죽음은 금기다. 우리는 죽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아는 것(the known)의 끝이기 때문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나의 삶을 살고 있으며, 따라서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도피도 죽음 앞에서는 계속될 수 없다. 확고한 위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당장은 이것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죽기 전에 인식한다면 꽤나 충격적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어렸을 때 나는 천진하게도 몰랐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을 몰랐고 이런저런 일이 뜻하는 바를 몰랐다. 나는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몰랐다. 무엇을 겁내야 하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바른 처신법을 몰랐다. 말해도 괜찮을 것과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을 몰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에는 지배적인 권위가 없었다. 나는 그야말로 백지였다. 그 모름의 상태에서 나는 텅 비어 있었다. 그야말로 백지. 내가 누군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때 묻지 않고 열려 있는 순수함뿐이었다. 한계와 경계에 대한 의문 없이 사랑과 경이로움뿐이었다.

마른 스펀지처럼 나는 부모, 선생, 사회가 제시한 모든 규칙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빨아들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생각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가르쳤다. 존재하는 방법에 대한 온갖 관념이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 관념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몸/마음이라는 것들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받았다. 나는 이런 행동방식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생존법을 배웠다.

그 덕분에 빈민가나 감옥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가 삶을 제한된 것이라고 배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몸이나 특정 인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믿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 세상은 ‘저기’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바깥세상을 무서워해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 생존법을 배우는 과정에선 두려움과 분리만이 강조될 뿐 분리를 넘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간과되었다. 나는 교육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사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도, 각종 규칙과 관념의 손길에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은 남아 있었다. 이 ‘알 수 없음’의 영역은 어떤 사상이나 믿음에 물들지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삶이 때로 바쁘고 소란스럽더라도 미지의 이것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이것으로서의 나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달리 결코 분리된 개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텅 비어 있는, 영원한 존재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성인이 되면서 이 점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바뀐 점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거나 내가 삶에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느낌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 내가 내게 습득된

생각들을 모두 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생각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본다는 것, 다시 말해 그야말로 생각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생각은 세상을 사는 데 쓸모 있는 도구다. 하지만 생각은 마치 한계가 실재하는 양 작동한다. 생각은 대상을 구분 짓고 대상에 이름을 붙이며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알려줌으로써 괜스레 벽을 뚫고 지나가보려다가 벽에 머리를 찰고 마는 불상사를 막아준다. 생각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과 한계를 알려준다. 마치 모노폴리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실제로 메이페어(Mayfair, 런던의 고급 주택지, 모노폴리의 게임판은 런던의 실제 거리명으로 되어 있으며 메이페어도 그 중 하나다-편집자주)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생각을 생각으로 봐야 이 모든 삶이 역할극 같은 게임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한계란 없다. 생각이 무어라 말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은 단지 삶이라는 연극의 범위 안에 있는 일만 다를 뿐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절대 알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한계란 없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순수하고 열려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 다만 나 자신이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뿐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텅 빔뿐이다.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같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모른다. 나는 그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그녀를 살펴볼 뿐이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녀는 현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 한정되어 있다. 그녀는

신체적 감각, 감정, 두려움, 공포, 생각을 갖고 있다. 그녀는 여러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배역을 연기한다. 그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영화가 시작되었고 다음 장면이 이어진다.

영화는 탐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해답을 구하거나 아는 방법을 찾는다. 자신이 탐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없애줄 최후의 해결책을 찾아 헤맨다. ‘아, 이제 나는 얻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휴식처를 염원한다. 우리는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여전히 뭔가 빠져있다는 깊숙한 느낌을 뭔가가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수년 동안 찾아다닌다. ‘완벽한 배우자가 있다면’이나 ‘바보 같은 생각과 감정을 조금만 자제한다면’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를 영원히,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해결책이란 결코 없다는 점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는 일시적이며 바뀔 수밖에 없다. 삶이라는 연극에서는 어떤 삶도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이해가 있으리라는 믿음은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생각의 속성은 무엇이든 낱낱이 파헤쳐서, 모름이라는 두려운 상태를 벗어나 안전해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이 농담 같은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알 수 없음’은 육체적으로도 불확실하다는 감각으로 느껴진다. 빙판길을 걸을 때 발밑이 불안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무슨 행동을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다. 당신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 아무것이나 시도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다. 창피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이 상상은 신체적으로 느껴진다.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두렵다. 하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영원한

의지거나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인다. 인생이 아무 이유나 의미 없이 바로 지금 새롭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아주 생생하다. 아무것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신체의 자연스런 생존 본능과도 대치되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인데도 몸과 마음은 이 점을 결코 알지 못한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걱정을 이어간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벗겨진 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 편안해지려면 내가 완전히 드러나(touched) 있지만 동시에 전혀 드러나지(touched)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 나인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 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 모든 보호장치들은 실제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 나는 무방비의 순진무구한 자유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보호가 필요 없다. 생각은 '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하지만 사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다. 여러분은 이것을 삶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삶이 나를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일체 모든 것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생각이 찬성하든 말든, 몸이 공포로 떨리든 말든 이것이 존재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음직하지 않다. 당신은 어느 날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제 다른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의외의 행동으로 당신을 놀래킨다.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계 짓고 분리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 생각의 속성이다. 마치 경계가 있는 양 연기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생각의 성질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가

나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한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상 속에서 제한된 자아감이나 생각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나는 절대 제한되지 않는다. 마치 경계가 있는 양 내 안에서 연극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을 ‘~인 척’하는 연기로 본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알 수 없음(not knowing)’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서 아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앎도 가능하다. 바로, 알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서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알 수 있다. 정말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나 이해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앎이라니. 알지 못함과 절대 알 수 없음 안에서의 절대적 휴식. 알 수 없음이야말로 진실로 알 수 있는 단 한가지다. 이걸 말이 안 되지만 오히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이것이 말이 된다면 이것 또한 특정한 경험이나 행동, 사고방식으로 제한되어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추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앎이나 이해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인가! 알거나 찾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영원한 휴식처란 없다. 기쁨 곳은 어디에도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없다. 오직 텅 빈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있는 양 멋지게 연기될 뿐이다.

나의 웹사이트는 www.not-knowing.com¹⁾이다. 여기서 ‘알 수 없음(not knowing)’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웹사이트에 우연히 들린 사람은 그것이 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른다!

1) 변경된 웹사이트 www.die-to-love.com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생각은 '이건 어떤 어떤 일이야' 하며 꼬리표를 붙이지만 나는 그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확실한 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의지하는 대상이나 사람도 없다. 나는 존재하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방법, 말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에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올바른지 모른다. 다만 말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나만의 해답 따위도 없다. 삶 자체가말로 내가 가진 것이자 나 자신이다.(끝) 

- 이 글은 『Not Knowing』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운마니 리자 하이드**(Unmani Liza Hyde) | 영국 태생으로 18세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았다. 수년 동안 일정한 거처 없이, 운마니의 메시지에 감명 받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목상 수련과 모임들을 이끌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녔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마니를 돕고 후원했으며 몇 년씩 거처를 제공해주었다. 운마니는 자신들의 집과 마음을 자유로이 개방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사는 한 개인으로서의 무대 위 역할에 동일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운마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홀로 길을 잃어버린 듯했고 매우 외로웠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년 동안의 탐구 후에 운마니는 인도에서 한 독일인 선 수련가를 만나, 그토록 찾아다녔던 그것이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마니는 깨어났다. 시간이 멈추었고, 구함은 끝났다. 그로부터 3년 후 운마니는 목상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I Am Life Itself』 『Die To Love』가 있고 현재 세 번째 책을 집 중이다.

역자 | **이재익** | 「지금여기」 번역위원, 현직 중학교 교사, 1999년부터 상담, 놀이, 민속놀이, 학생자치, 청소년인권, 마음공부, 명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중이다. 놀이연수, 청소년 상담, 교사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강의, 가족세우기 트레이너 과정 등을 이수하였다.